

월간

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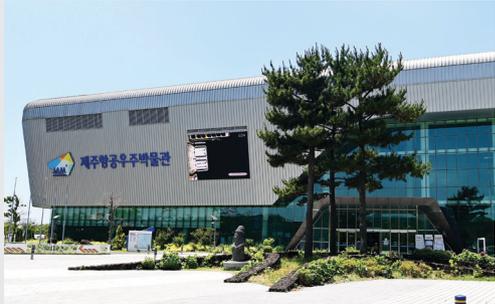


제553호 07

04

기획

대한민국의 항공우주박물관 I :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16

공군 박물관 인사이트

F-51D 무스타프



10

특집

공휴일: 공군과 함께하는 휴일 I



18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KF-21 보라매



13

특별 인터뷰

『해·공군·국직 부대 도감』 저자 신기수

20

Aero Detail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Ⅲ: F-16

표 지(앞) 대한민국의 강산을 지키고 있는 '신념의 조인' F-51D(상병 문준혁)
표 지(뒤) 피서를 떠난 하늘이프렌즈(최수정 작가)
발행일자 2024년 7월 1일(통권 제553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실장 대령 김권희
편집감수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세현
기획·편집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서현욱, 중사 강지영
전자도서관 www.afzine.co.kr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4060303)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26 **항공우주박물관 답사기**
미국 VII. 아나폴리스



44 **영화로운 나날**
「그랑블루」 도전, 우정, 청춘 그리고 여름 바다

46 **생각하는 그림**
선을 넘다

48 **공테리어**
우리 집에 알맞은 침대를 찾아보자

30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49 **책 읽는 공군**
“사람을 아십니까?”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복지대대 일병 윤강호)

38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콩: 풍부한 영양, 깊은 역사

50 **공군인의 하루**
제 이름은 공군 정훈병입니다
(제39비행단 정훈실 일병 류호진)

40 **동서양 그랜드투어**
「자화상」,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51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42 **한 달, 한 권**
여름이 떠오르는 소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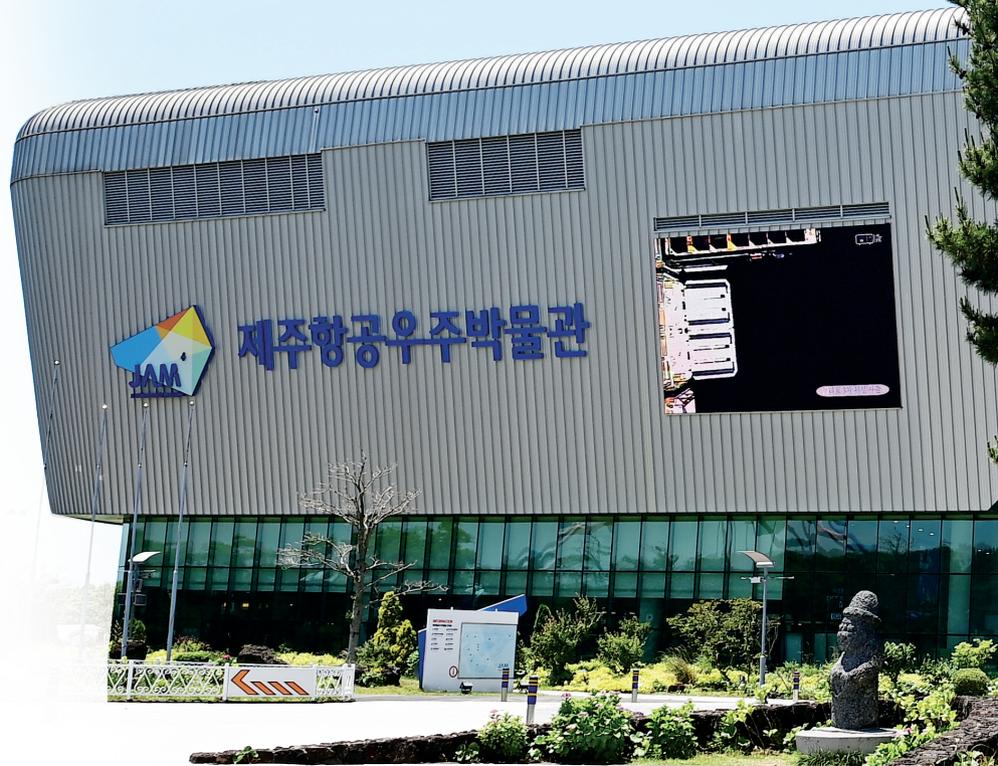


월간
공군

대한민국의 항공우주박물관 I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항공우주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그 역사는 길지 않지만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르게 발전해오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전 세계가 항공우주 분야를 국가 미래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하늘과 우주를 향한 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월간 『공군』 편집실은 항공우주기술의 발전 역사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특별 기획으로 한국의 항공우주박물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입니다.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전경



알프르 비행장 격납고



옛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했던
대정초등학교 내 비문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은 2014년에 개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3만 평에 이르는 부지를 자랑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관련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다양한 항공기와 우주 관련 전시물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항공우주 기술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박물관 인근에서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알프르 비행장, 전쟁 중 조국 수호 의지를 불태우며 학업을 이어갔던 옛 공군사관학교의 흔적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 구성

박물관은 다양한 테마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전시관은 항공기, 우주 탐사, 항공우주의 역사 등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물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 전시관에서는 실제 항공기와 모형을 통해 항공기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 탐사 전시관에서는 우주 탐사선, 인공위성, 우주복 등의 전시물을 통해 우주 탐사의 역사와 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전시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항공역사관

박물관 1층은 항공역사관으로 하늘을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과 역사, 그리고 실제 항공기 모형, 대한민국 공군의 발자취와 미래 항공기술의 비전을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항공역사관으로 향하게 되면 처음 눈을 끄는 것은 ‘에어홀(Air Hall)’입니다. 실물 비행기를 중심으로 비행기의 원리와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투입되었던 전투기부터 최근 명예로운 퇴역을 한 팬텀기까지 26대의 실제 항공기 모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내 항공기 전시장인 에어홀(Air Hall)



에어홀 내 팬텀기

이곳 항공역사관에서는 라이트 형제가 만든 인류 최초의 동력기인 플라이어호부터 항공기술의 발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항공기술이 발전해온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인 안창남과 그의 비행기 ‘금강기’를 다루고 있어 암울 시대 상황에서도 하늘을 향한 도전을 이어갔던 우리나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 역사 전시관



안창남 비행기 소개 관련 전시물

1층 전시실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전시는 바로 '공군 갤러리'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태동하던 시기와 일본이 우리를 억압하던 그 시기부터 항공과 조종사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에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설립한 노백린 장군에 대한 소개 전시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산 항공기를 개발하고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으로 비상하는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공군 갤러리는 대한민국 공군이 걸어온 길과 현재 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게 될 길을 간단히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입니다.



공군 갤러리 입구



대한민국 공군 태동기



대한민국 항공기술 발전 과정

2층 천문·우주관

총 2개 층으로 구성된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1층과 다른 테마를 2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층에서는 고대부터 시작된 동서양 천문학의 역사, 우주 개발의 역사와 미래 우주시대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태양계, 은하계, 블랙홀 등 현재까지 인류가 밝혀낸 우주 공간의 모습과 138억 년에 달하는 우주 생성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문·우주관 입구

2층의 첫 번째 전시는 천문학과 관련된 전시로 시작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천문학 발전 양상을 통해 인류가 하늘을 향해 가진 인식과 우주관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 워크 같은 독특한 관람 통로는 은하의 종류와 태양계의 비밀 등을 유려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어진 전시장에서는 태양계의 구조와 소행성, 별과 은하, 그리고 우주 전체에 대한 구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 전시장에서는 태양계를 구성하는 8개 행성의 모형과 간단한 소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주를 촬영해온 허블 망원경의 축소 모형, ‘걸어다니는 실험실’이라고 불리는 화성 탐사로봇인 큐리오시티(Curiosity)의 모습을 영상과 패널을 통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화성탐사 관련 전시

2층 전시실에서는 천문과 함께 큰 주제로 우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류가 우주를 향해 도전해온 역사와 현재의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스페이스 워크

우주를 향한 발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전시에서는 냉전시대로부터 시작된 우주 개발경쟁시대의 역사, 우주를 향한 로켓공학의 진화 과정, 우주산업의 실용화와 인공위성,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주 전시장 전경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



아름다운 바다와 화산섬의 정취를 간직한 제주도의 항공우주박물관에서 마음의 크기, 그리고 생각의 크기도 키우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

空休日

공휴일: 공군과 함께하는 휴일 I

어느덧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 찾아왔다. 무더운 여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일하는 것만큼이나 잘 쉬며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름을 맞아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군 장병들이 슬기롭게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특집을 준비했다. 2부작으로 구성된 이번 특집에서는 각 부대에서 추천한 부대 인근 명소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동부 지역인 사천, 김해, 원주, 대구, 예천, 강릉기지 인근의 명소를, 다음 호에서는 광주, 수원, 성남, 청주, 충주, 서산기지 인근의 명소를 알아볼 예정이다. 그럼 공군과 함께하는 휴일을 위해 지금 떠나보자.

사천 공군기지



아름다운 남해와 인접한 사천 공군기지 주변에는 많은 명소가 있다. 선진리성은 전란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의해 축조된 시설이다.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을 격파하기도 했다. 비록 선진리성의 시작은 전쟁이었지만 현재는 사천을 대표하는 벚꽃 명소로 남아있다. 또한, 이곳 선진리성은 6·25 전쟁 발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천기지 소속으로 활약하며 전사한 공군 장병 113인을 기리기 위한 총령비가 위치한 뜻깊은 장소이다. 선진리성과 함께 바다와 산을 동시에 운행하는 사천 케이블카, 국내에서 5번째로 큰 아쿠아리움인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등 사천 공군기지 인근은 볼거리들로 가득하다.



선진리성 총령비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사천 케이블카

김해 공군기지



김해 공군기지는 낙동강 12경 중 하나인 을숙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을숙도에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부산현대미술관이 있다. 외관부터 특별한 부산현대미술관은 2018년 개관한 공공미술관이다. 부산현대미술관은 철새 도래지 중 하나인 을숙도의 생태 환경을 고려하여 건물 외부와 내부를 식물이 수직으로 자라게 하는 정원으로 꾸며 특별한 느낌을 준다. '수직 정원의 거장' 패트릭 블랑의 작품으로, 조성 당시 식물 175종을 심었다. 바라보고 있으면 드론으로 숲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대한민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수직 정원은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이 건물의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부산 현대미술관(출처: 네이버 블로그 고인돌)

원주 공군기지



원주 공군기지 인근에는 뛰어난 경관을 볼 수 있는 명소가 있다. 바로 소금산 그랜드벨리이다. 전체 코스 5.3km로 약 2시간 30분 정도로 관람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산행과 함께 주변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출렁다리에서는 발을 내딛을 때마다 출렁이는 아찔함과 주변의 기암괴석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출렁다리가 조금 무섭(?)다면 출렁이지 않는 울렁다리에서 소금산의 멋진 풍경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소금산도를 통해 스카이다워에 가게 되면 원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랜드벨리 음악분수(출처: 원주시청 시정홍보실)



소금산 출렁다리(출처: 원주시청 시정홍보실)

대구 공군기지



여행과 휴식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먹거리'이다. 식도락(食道樂), 여러 가지 음식을 두루 맛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일이라는 뜻이다. 대구 공군기지 인근에 위치한 '서문시장'에서 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서문시장은 조선 후기 삼남(전라, 경상, 충청)에서 가장 큰 시장이자, 전국 3대 시장의 하나로 꼽혔던 대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다. '먹거리 천국'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먹거리는 물론 버스킹 등 볼거리도 넘치는 서문시장은 다채로움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곳이다.



서문시장 전경(출처: 전통시장진흥재단)

예천 공군기지



예천 공군기지 인근에는 대한민국의 대표 명승 중 하나로 불리는 곳이 있다. 바로 회룡포이다.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이 360도 휘감은 모양의 회룡포는 육지 속에 있는 섬처럼 느껴진다. 강을 따라 펼쳐진 백사장을 볼 수 있으며 전망대에 오르면 회룡포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회룡포 전경(출처: 게티이미지)



항공촬영한 회룡포 전경

강릉 공군기지



강릉 공군기지는 푸른 동해와 인접한 곳이다. 강릉기지에서 정동진 쪽으로 향하다 보면 탁 트인 동해를 배경으로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는 미술관이 있다. 강릉의 옛 지명인 ‘하슬라’에서 이름을 따온 하슬라 아트 월드이다. 바다와 미술품들이 조화를 이룬 이곳은 강릉 최고의 명소 중 하나로 기피하면서도 우아한 오토마타*들이 가득한 피노키오&마리오네트 박물관, 해안 절벽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각공원 등이 찾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어쩌면 아직까지 찾지 못한 인생샷(?)을 이곳 하슬라 아트 월드에서 드디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슬라 아트 월드



바다와 어우러진 하슬라 아트 월드



하슬라 아트 월드 포토존

* 기계장치를 통해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



특별 인터뷰

『해·공군·국직 부대 도감』 저자 신기수

안녕하십니까? 월간 『공군』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군을 구성하는 독립 부대들의 부대 마크와 그 의미를 정리한 『부대 도감』을 집필한 신기수 작가입니다. 작년 발간한 『육군 부대 도감』에 이어 올해는 『해·공·국직 부대 도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책으로 집필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대 마크에 얽힌 이야기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며 잘못 알려진 것들을 바로 잡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책 집필에 뛰어 들게 되었습니다.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우선 저는 평소에 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직업군인이어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군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쟁사 분야와 부대 마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사적지를 다니는 여행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행지에서는 제가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대 도감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관련된 책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부대 도감』은 평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인데 현재 우리나라엔 그런 종류의 책이 없는 것 같았고 아직까지 인터넷상에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이를 바로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계기로 책 집필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필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주시 수 있을까요?

자료 수집과 검증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전쟁기념관에 협조하여 큰 틀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개별 부대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마크, 마크의 의미, 부대의 애칭, 애칭의 의미’ 순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퇴고, 퇴고, 또 퇴고를 하며 글을 가다듬었고 마침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쓰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일부 부대의 임무 특성상 공개가 제한되는 자료들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군의 핵심 중 하나가 보안이다 보니 그럴 것이라고 이해했지만 저자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았고 집필 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집필 후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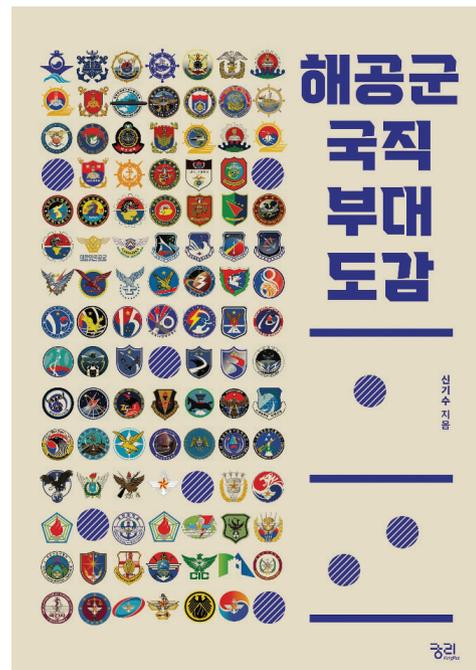
다른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뜻깊은 내용이 ‘책’이라는 산출물로 나왔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와 함께, 지인들이 전하는 축하 연락을 받으며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삶의 목표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과 달리 조금은 다른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인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면서도 영어 공부를 할 겸해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번역하며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군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밀리터리 테마의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덕업일치’의 삶을 살고 있어서 매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사와 관련된 제 얹이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알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사대학원에 진학하여 ‘군사학’이라는 분야에 대해 보다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발전된 저의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집필 작업을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해·공군·국직 부대 도감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복무합니다. 긴 기간 복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짧은 경험을 가지고 마치 군을 다 아는 것처럼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에 관심을 두지 않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실들 중 부대 마크와 관련된 이야기도 포함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책이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늘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해 헌신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군에 대한 많은 사실을 알아가길 권해봅니다. ☞



인터뷰 중인 신기수 작가

공군 박물관 인사이트

F-51D 무스탕

대한민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창군이 된 이후 어느덧 75주년을 향해 가고 있다. 75년의 시간 동안 우리 공군은 수많은 발자취를 남기며 발전해왔다. 특히, 공군사관학교에 위치한 공군 박물관에는 대한민국 공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많은 문화재들이 있다. ‘공군 박물관 인사이트’에서는 공군 박물관에 있는 다양한 문화재를 소개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7월 3일 ‘조종사의 날’을 맞아 그 기원과 관련있는 문화재인 F-51D 무스탕을 소개하고자 한다.

F-51D 무스탕

F-51D 무스탕은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기이자 6·25전쟁 당시 활약한 항공기이다. 이 전투기는 출력이 강하고 조종하기 까다로워 ‘야생마(Mustang)’라는 애칭이 붙었다. 이 전투기는 긴 제공시간과 탁월한 무장 능력 등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서 활약했다.

6·25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대한민국 공군은 L-4, L-5 연락기와 T-6 훈련기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단 한 대의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미 전투기를 보유한 북한 공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투기가 필요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게 전투기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마침내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기 도입을 약속받게 된다. F-51D 무스탕 전투기를 도입하게 된 대한민국 공군은 6·25전쟁이 발발한 다음 날인 6월 26일, 우리 공군의 베테랑 조종사 10인을 일본에 위치한 이다즈께 기지에 파견하여 F-51D 무스탕 전환교육을 받게 했다.



여의도 기지에서 출격하는 F-51D



F-51D 출격 신고



F-51D에 네이팜탄과 로켓탄을 장착하는 무장사

이들은 일주일 남짓의 짧은 전환 교육을 받고 7월 2일, 본인들이 훈련받았던 10대의 F-51D 무스탕을 직접 조종하여 현해탄(玄海灘)을 건넜다. 그리고 복귀 하루만인 7월 3일, 대한민국 공군 F-51D 무스탕의 역사적인 첫 출격이 시작된다. 이후, 이날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공군은 7월 3일을 '조종사의 날'로 명명했다.

6·25전쟁이 진행되며 F-51D 무스탕은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으로 활약했다. 대한민국 공군은 총 133대의 F-51D 무스탕을 운용하며 약 8,400여 회의 출격을 실시했다. 특히, 승호리철교 차단 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 351고지 전투 항공 지원 작전 등을 수행하며 많은 전과를 이루게 된다.

1949년 10월 1일 창군된 대한민국 공군은 미군과 함께 F-51D 무스탕을 운용하며 조종, 정비 등을 포함하여 항공 작전 전 분야에 걸쳐 국제적인 수준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

었다. 더불어, 단독출격을 포함한 다양한 실전 경험을 통해 항공기 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얻고 항공작전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F-51D 무스탕의 도입과 함께 성장한 대한민국 공군은 이후 급격한 현대화를 이룩하며 오늘날의 선진화된 공군을 건설할 수 있었다.

이곳 공군 박물관에 위치한 F-51D 무스탕에는 '신념(信念)의 조인(鳥人)'이라는 특별한 문구가 있다. 이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군의 조종 교관이었던 딘 헤스 중령(당시 계급이 자신의 전용 무스탕에 새겼던 문구로 '신념(信念)의 조인(鳥人)'은 그의 좌우명인 'By faith, I fly'를 번역한 것이다. '신념(信念)의 조인(鳥人)'에는 자유 세계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창공에서 목숨을 걸었던 선배 공군인들의 의지가 담겨있다. 



활주로에 도열 중인 F-51D



정비 중인 F-51D



F-51D 앞에서 기념 촬영 중인 제1기 조종학생



공군 박물관 항공기 전시장에 전시된 F-51D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KF-21 보라매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할 4.5세대 전투기이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 공군 전력 유지 및 미래 전장 운용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서 향상된 생존성과 연합·합동작전, 후속지원 시스템, 공중우세 확보 및 지상 정밀타격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이다. 





길이 16.9m

폭(너비) 11.2m

높이 4.7m

최대속도 2,200 km/h

최대이륙중량 25,600 kg

Aero Detail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III: F-16

대한민국 공군 F-16 도입 역사



한국형전투기사업(KFP)으로 전력화되기 시작한 KF-16

대한민국 공군은 1981년 11월부터 시작된 피스 브릿지 (PB : Peace Bridge) 사업을 통해 F-16C/D 블록 32 36 대를 처음 도입하여 1986년부터 당시 제11전투비행단에 배치했다. 이후 1991년 6월에는 F-16D 복좌형 기체 4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도 했다. 이때까지 도입된 기체는 도입 사업명의 앞글자를 사용하여 F-16PB로 불렸다.

1991년 3월, 한국형전투기사업(KFP : Korean Fighter Program) 대상 기종으로 F-16 블록 52가 선정되면서 1994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KF-16C/D 1차분 120대가 전력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4년까지 2차분 20대가 추가 생산되면서 KF-16C/D는 제20전투비행단과 제19전투비행단에 배치되었다.

대한민국 공군의 중추적인 전력이 된 F-16 계열 전투기

는 전력화 이후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임무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기존 F-16PB의 성능개량형인 F-16PBU(Peace Bridge Upgrade)는 2016년에 전력화가 완료되었다. F-16PBU는 AIM-120 암람 미사일, Link 16 전술데이터링크 운용능력 등을 갖추어 기존 F-16PB에 비해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KF-16도 2016년부터 성능개량을 추진하여 F-16V 블록 72에 준하는 성능을 지닌 KF-16U로 2021년부터 전력화되고 있다. KF-16U는 AN/APG-83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장착하여 표적 탐지능력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KF-16은 전투임무 수행뿐만 아니라 일부 기체가 정찰 포드를 탑재하여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경량전투기 사업과 YF-16의 탄생

1970년대에 전력화된 美 공군의 F-15는 고성능 기종으로 성능 면에서 만족스러웠지만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었다. 美 공군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고가의 고성능 전투기와 저가의 경량전투기를 함께 배치해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하이 로우 믹스(High Low Mix) 정책을 구상했다.

저가의 경량전투기는 1972년에 LWF(Light Weight Fighter) 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 美 공군은 경량전투기에 대한 요구 사안으로 마하 2 이내의 최대속도, 대형 레

이더나 장거리 미사일보다는 뛰어난 기동성을 가질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 당시 제너럴 다이내믹스 사는 YF-16 기종을, 노스롭은 YF-17 기종을 美 공군에 제시했다. 경량전투기의 가능성에 주목한 美 공군은 이를 발전시켜 공중전 전투기(Air Combat Fighter) 사업을 1974년에 시작했다. 이 사업에서 YF-16은 美 공군에 의해 대상 기종으로 최종 선정됐다.

공중전 전투기 사업을 시작할 당시 F-16의 양산 계획은 기존의 F-4, F-104 전투기 대체용으로 불과 650대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저가의 경량전투기면서도 우수한 다목적 성능을 인정받아 美 공군은 1977년에 발주 대수를 1,300여 대로 늘렸다. 그리고 NATO 등으로 수출이 시작되면서 F-16의 생산량은 급증했고 총 생산 대수는 4,600여 대를 넘어서고 있다.



경량전투기 계획으로 탄생해 서로 경쟁한 YF-16(아래)과 YF-17 코브라

다양한 블록 구분

1976년 10월 20일, F-16A 출고 이후 장기간에 걸쳐 생산된 만큼 F-16은 다양한 파생형이 존재한다. F-16의 파생형은 블록(Block) 단위로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美 공군에 처음 납품된 블록 1 항공기부터 블록 20 항공기까지의 F-16은 F-16A/B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블록 25부터 블록 50 계열까지는 F-16C/D형으로 구분된다. 아랍에미리트를 위해 개발된 블록 60 계열은 특별히 F-16E/F로 명명됐다. 블록 70 계열은 가장 최신형 기종으로, F-16V로 명명됐다.

최신형으로 개량을 마친 F-16A/B형은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등에서 운용되었다. 이들에 대한

개량은 MLU(Mid-Life Update)라고 불리며, 항공전자장비의 개량수준은 F-16C/D 후기형에 준하는 수준이었다.



포르투갈 공군의 F-16A

처음 C/D형으로 구분되는 블록 25형은 美 공군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블록 25형까지는 모두 프랫 & 휘트니사의 F100 엔진을 장착하지만 블록 30형부터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110 엔진을 선택하여 장착할 수 있다. 그래서 엔진에 따라 블록 명칭도 변한다. 즉 블록 30/40/50 항공기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을, 블록 32/42/52 항공기는 프랫 & 휘트니 엔진을 장착한다.

대한민국 공군은 F-16C/D 블록 32와 블록 52를 운용하였으므로 프랫 & 휘트니 엔진이 탑재된 것을 블록명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공군의 블록 52 계열 F-16은 Korean 이니셜을 추가하여 KF-16으로 부르고 있다. 블록 32 계열은 앞서 도입역사에서 서술하였듯이, 미국으로부터 직도입한 사업명(Peace Bridge)을 이용해 KF-16과 구분하고자 F-16PB로 부르고 있다.



2004년에 생산된 KFP 2차 최종호기

美 공군은 통상 블록 30/32를 F-16C라고 하고, 블록 40/42는 F-16CG, 블록 50/52는 F-16CJ라고 부른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군의 PB F-16은 美 공군의 F-16C에 해당하고, KF-16은 美 공군의 F-16CJ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美 공군의 F-16과 수출형 F-16은 해당 국가의 사양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1988년부터 생산된 블록 40 계열 F-16은 주·야간 저공 침투와 정밀 공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랜턴(LANTIRN) 포드를 탑재할 수 있다. 1991년부터 생산된 F-16 블록 50 계열은 대공제압을 위한 AGM-88 대 레이더 미사일과 이 미사일을 위한 타게팅 포드를 운용할 수 있다.

F-16E/F

F-16 블록 60은 특별히 F-16E/F로 불린다. 이는 파생형 부호가 바뀔 만큼 많은 성능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일명 데저트 펠콘(Desert Falcon)으로도 불리는 F-16E/F는 아랍에미리트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F-16이다. 기존 F-16과 외형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은 기수에 볼모양으로 돌출된 센서다. 이 센서는 기존 F-16이 공기 흡입구

아래에 부착하던 2개의 랜턴(LANTIRN) 포드를 내장형으로 바꾼 것이다. 기체 외부에 포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항력이 최소화되어 F-16E/F는 공대지 임무 시 비행 성능과 항속거리가 동시에 향상됐다. 그리고 일체형 연료탱크 2개를 동체 상부에 부착해 항속거리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장비 증가는 무게를 무겁게 만들어 항공기 기동성을 저하시켰다. 이러한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F-16E/F에는 추력이 크게 증가된 F110-GE-132 엔진을 탑재했다.

기체 내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크게 발생했다. 가장 큰 변화는 레이더이다. F-16E/F는 능동전자주사배열(AESA) 방식 레이더가 탑재됐다. APG-80 ABR(Agile Beam Radar)로 명명된 이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순간적으로 레이더 빔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레이더 모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다수의 공대공 목표물을 탐색 및 추적하면서 동시에 지형추적 비행도 가능하다. 그리고 고해상도의 합성 개구 레이더 이미지를 제공해 자체적으로 지상 목표를 식별해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F-16E 블록 60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불타고 있는 유전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美 공군의 F-16, F-15C, F-15E

걸프전에서의 F-16

걸프전에서 F-16 240여 대가 작전에 투입됐다. 작전 기간에 걸쳐 가동률이 90% 이상을 웃돌았으며, 단 7대만이 전투 손실로 기록되어 우수한 신뢰성과 생존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작전 기간 중 F-16의 총 출격 횟수는 13,000 소트가 넘고, 이 중 대부분은 공격 임무였다.

F-16은 주로 바그다드와 이라크 북부 및 동부 지역에 대한 공격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야간 폭격 임무도 4,000 소트 이상 수행했는데, 랜턴 장비를 사용하여 우수한 주야간 전천후 폭격능력을 보여줬다.

걸프전에서 F-16은 장시간 체공 능력과 우수한 저고도 기동성을 바탕으로 항공통제 임무도 수행했다. 이는 랜턴 장비를 통해 식별하기 곤란한 목표물을 F-16이 확실하게 확인한 후 공격 편대에 정밀한 목표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였다. 걸프전에서 항공통제 임무는 아군끼리의 오폭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걸프전 후반의 쿠웨이트 탈환 작전에서 F-16은 짧은 재출격 시간으로 많은 공격 임무를 담당하여 걸프전의 승리와 쿠웨이트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비운의 F-16XL

양산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F-16XL은 F-16의 능력을 최대로 이끌어낸 역사적인 기종이다. 비록 美 공군의 신형 전투기 사업에서 탈락하여 역사 속에 묻혔지만, F-16XL을 통해 연구됐던 기술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F-16XL 개발은 美 공군이 F-111 단거리 폭격기를 대체하기 위해 1980년대에 추진한 ETF(Enhanced Tactical Fighter) 사업이 계기가 됐다. 폭격기를 폭격기로 교체하지 않고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이유는 별도의 호위 전투기 없이 폭격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시 공중전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폭격기와 제공 전투기를 단일 기종으로 교체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에 당시 맥도넬 더글라스(現 보잉)와 제너럴 다이내믹스(現 록히드마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우수한 공중전 성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폭격기를 전투기로 개조하는 것보다 전투기를 폭격기로 개조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이었다. 따라서 당대 최고의 전투기 제작사가 경쟁에 참여한 것이다.

양사는 각각 F-15와 F-16 플랫폼을 이용해 장거리 폭격이 가능하도록 항속거리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F-15는 대형 기체였기 때문에 내부공간의 여유가 많아 연료량 증가가 상대적으로 쉬웠다. 맥도넬 더글라스는 F-15 형상을 유지하면서 내부 연료탱크를 추가하고, 외부에 일체형 연료탱크를 부착한 F-15E형을 제안했다. 반면 소형 경량전투기였던 F-16은 연료량 증가가 쉽지 않았다. 이에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델타익의 특성에 주목하고 F-16의 무미익 델타형을 제안했다. 기존 F-16 구성품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날개를 대형으로 교체해 많은 연료를 내부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동체를 연장시켜 내부 연료 탑재량도 증가시켰다. 기체 내부는 거의 유사하지만 외형은 확연히 달라진 새로운 F-16, 즉 F-16XL형이 탄생한 것이다.

F-16XL에 적용된 주익은 후퇴각이 70도인 내익과 후퇴각 50도인 외익이 결합된 형태다. 비교적 복잡한 형상이지만 단순 델타익에 비해 양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초음속에서의 항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새로운 주익으로 F-16XL의 날개 면적은 기존에 비해 2배 이상 넓어졌고, 내부 연료 탑재량도 약 73%가 증가하였다. 중량이 소폭 증가한 데 비해 항력은 감소하고, 연료 탑재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항공기 성능은 크게 향상됐다. 예전대 기존 F-16의 최대속도는 무장을 탑재하면 아음속에 불과했지만 F-16XL은 무장을 탑재하고도 마하 1.6까지 비행이 가능했다. 초음속 공대지 무장투하가 가능했던 것이다. 무장탑재 스테이션도 총 17개소로 늘어나 500파운드 폭탄 22발을 탑재할 수 있었다. 기존 F-16과 비교하면 F-16XL은 같은 무장을 탑재한 상태에서 항속 성능이 2.24배, 2배의 무장을 탑재해도 1.45배의 향상된 항속 성능을 보인다고 제작사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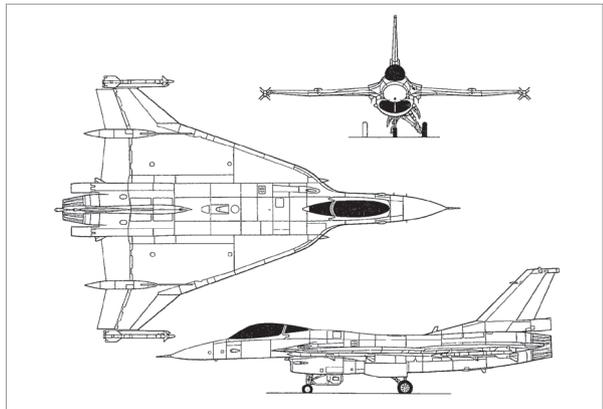
F-16XL은 모듈화된 F-16의 구성품과 동체를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기존 F-16과의 공통성이 72%에 달했다. 따라서 기존 F-16 생산 라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개발비는 물론 획득가를 크게 낮출 수 있었다. 비용뿐만 아니라 F-15E에 비해 낮은 레이더반사단면적(RCS)과 무장 투하 후 고속으로 귀환이 가능했던 F-16XL은 여러모로 장점

이 있었다. 하지만 보다 높은 공격능력을 원했던 美 공군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F-16XL은 경쟁에서 패했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성능개량과 F-16V의 미래



F-16의 폭격능력을 극대화한 F-16XL



F-16XL의 삼면도

F-16이 대한민국 공군은 물론 서방 세계의 대표적인 전투기로 자리 잡게 된 요인은 소형 경량전투기면서도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점이다. 초기에는 단거리 공대공 무장만 탑재했기 때문에 F-16의 공중전 성능은 부족한 편이었다. 하지만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F-16V형에 이르러서는 공중전 성능은 물론 장거리 침투 공격까지 가능한 중형 전투기로 변모했다.

기존에 생산된 F-16에도 끊임없는 성능개량으로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F-16A/B형을 도입한 유럽 국가는 앞서 언급했던 MLU 사양을 적용해 블록 40/50 계열에 준하는 F-16AM/BM으로 성능을 개량했었다. 美 공군은 지속적으

로 다단계 성능개량(MSIP) 사업을 진행했고, 블록 40/50 계열 F-16에는 공통사양 개량사업(CCIP)을 적용했었다. 공통사양 개량사업의 핵심은 임무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이다. 용량이 큰 신형 임무 컴퓨터는 부품이 모듈화되어 있어 향후 등장할 신규 무장도 쉽게 F-16에 통합할 수 있다. 개량사업에는 Link 16 데이터링크도 포함되어 있어 외부로부터 입수되는 정보가 많아졌다. 다기능 시현기도 흑백에서 컬러형으로 변경됐다. 흑백 시현기는 명암과 심별 모양으로만 정보가 구분되어 상황인식에 한계가 있었다. 시현기가 컬러화되면서 조종사는 보다 쉽게 많은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근접 공중전 능력 향상을 위해 헬멧 조준기를 도입하여,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었다. 헬멧 조준기는 조종사가 적기를 바라보는 방향대로 무장을 연동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종사는 무장을 적용하기 위해 적기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고도 무장을 발사할 수 있어 적기보다 근접 공중전을 유리하게 펼칠 수 있다. AIM-9X 미사일은 헬멧 조준기와 연동되어 정면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표적도 자동으로 추적해 명중시킬 수 있다. 그 외에도 공통사양 개량사업을 통해 개량형 적아식별장치를 적용하고, 신형 타게팅 포드, 정밀유도 무장을 다수 탑재할 수 있는 랙이 장착되는 등 많은 성능을 향상시켰다.

블록 70/72에 해당하는 F-16V는 첨단 레이더와 임무, 항전장비를 갖춘 최신형 F-16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F-16V에는 AN/APG-83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신형 모듈식 임무 컴퓨터, 신형 전자전 장비를 탑재되어 있다. 또한, 조종석에는 중앙에 대형시현기를 장착하고, 헬멧 조준기(JHMCS) 등을 활용하여 공중전에서 상황인식

과 임무수행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F-16V는 신규 생산되는 F-16뿐만 아니라 KF-16V와 같이 기존에 생산된 F-16의 성능개량 표준형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 팬텀 II 이후 최대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불리는 F-16은 美 공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 등 많은 운용국들이 성능개량을 계획하고 있어 서방 세계의 주력 전투기로서의 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CCIP 개량을 적용한 터키 공군의 F-16



CCIP를 적용받은 F-16 블록 40 조종석



임상민 박사

한국항공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 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미국 VII. 아나폴리스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아나폴리스(Annapolis)는 인구 4만의 작은 도시이다. 메릴랜드(Maryland)주의 주도인 이 도시는 워싱턴·DC에서 동쪽으로 50km, 볼티모어에서 남동쪽으로 48km 떨어져 있다. 이 도시의 경제활동은 주 행정부와 美 해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美 육사를 웨스트포인트로 부르듯이, 아나폴리스는 美 해군사관학교의 대명사이다. 1845년에 창설된 이 학교는 매년 1,2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약 1,000여 명만이 졸업하여 해군과 해병대 장교로 임관한다. 여권 확인과 소지품 검색을 통과하면, 자유롭게 캠퍼스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거닐 수 있다.



美 해사 신입생과 생도대 본관



美 해사 일부 건물 전경

美 해군 항공역사 기념 강당과 라이트 형제 항공기

美 해군사관학교는 자체 부두와 2개의 반도를 포함하는 광대한 부지를 가졌다. 18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답게 건물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이다. 학교에는 미국을 강대국으로 부상시키는 데 선봉장 역할을 한 영웅들을 기리는 건물·동상·기념비·동판 등이 가득하다. 웅장한 석조건물의 내부는 호화로운 대리석들로 치장되어 있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졸업생의 영웅담이 복도 벽을 가득 메우고 있다. 학교 정문 근처의 체육관을 지나면, 조종 헬멧을 들고 있는 조종사 동상과 함께 델그린(Dahlgren) 다목적 강당이 나타난다. 美 해군의 항공역사를 담고 있는 대형강당 내부에는 복원된 라이트(Wright) 형제의 항공기가 천장에 전시되어 있다. 1903년 제작된 라이트 형제의 동력 항공기는 美 해사 상공을 비행했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에 이어 美 해군에서도 조종사가 탄생했다. 美 해군 최초의 조종사인 엘리슨(Ellyson) 중위는 1911년 7월 2일, 아나폴리스에서 시험비행에 성공했고, 비행 교관이 되어 수많은 후배 조종사들을 양성했다. 이들은 제1·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의 주력 조종사가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엘리슨은 1928년 2월 27일, 비행사고로 순직했다.



다목적 강당 내의 라이트 형제 항공기



생도대 건물 내의 전쟁영웅 사진



영웅으로 추앙받는 美 해군 조종사 동상

인재양성의 산실, 아나폴리스로 물러드는 신세대

대서양의 작은 포구 아나폴리스는 한국 진해보다 더 작은 도시이다. 자유로움을 즐기고,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 신세대의 분위기이다. 이러한 분위기와 달리 美 해군사관학교는 엄격한 생도 생활, 힘든 교과과정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이를 기꺼이 감수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사관학교로 물러든다. 합격자 대부분은 최상위 고교 성적, 강건한 신체, 탁월한 사회봉사 실적을 갖춘 청소년들이다. 아울러 대통령이나 부통령, 주·연방 상원의원의 추천과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특별전형으로 美 해사 생도가 될 수 있다. 졸업생들의 진로 또한 다양했다. 해군 수상함정과 항공·잠수함·우주비행사·군의원·법무관·교수·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미국 사회를 이끌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우주비행사를 배출한 학교가 美 해사라고 한다. 또한, 대형 체육관 복도에는 해사 출신 올림픽 메달리스트 명단이 벽면에 가득했다. 4,500여 명의 인재가 있다 보니 국가 대표급 체육특기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美 해군 항공 기념 다목적 강당



다목적 강당 내의 생도 체육활동

학교시설 완전 개방과 생도들의 자기역량 개발

美 해사는 관람객들에게 명예의 전당, 생도생활관, 교회, 역사박물관, 영내 공원 등 대부분의 영내시설을 개방한다. 심지어 생도들의 체육활동까지도 참관할 수 있었다. 특히, 사관학교 진학을 꿈꾸는 많은 초등·중등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학교를 견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엄마와 함께 온 버지니아 출신 10살 초등학생은 美 해사를 졸업하고 해병 장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더 놀라운 것은 미드웨이해전 기념탑 앞에서 안내인 대신 어린 학생이 이 전쟁의 역사를 설명했다. 초등학생이 전쟁사에 이토록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신기했다. 마침 스포츠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1학년 여자 생도 2명을 만났다. 사진 촬영에 흔쾌히 응하면서 발랄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풋풋한 대학 신입생들이었다.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 2학년 생도들은 외출·외박 시 의무적으로 정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3, 4학년 외출 복장은 자율에 맡기며, 자가용 운용도 가능하다. 주말을 이용하여 먼 거리의 집까지 가는 것이 어려운 생도들이 많다고 한다. 이에 아나폴리스의 많은 시민들이 사관생도들을 위한 자발적인 후원자(Sponsor) 제도를 만들어 주말에 생도들이 자신들의 가정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물론 영내에서도 자기역량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 자기개발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생도들도 많다고 한다.



미드웨이해전 기념탑과 전쟁사를 설명하는 초등학생

하늘공원이 보여주는 美 해군의 항공전력

광대한 美 해사 캠퍼스는 작은 강을 사이에 두고 두 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 교육시설을 벗어난 반대편 반도에는 해양훈련센터, 항공기전시장, 관사, 졸업생 묘역이 있다. 美 해사 졸업생 중 희망자는 모교의 영내 묘역에 안장될 수 있다.

또한, 기다란 전사자 추모 비각에는 제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프간·이라크전쟁에서 전사한 해사 졸업생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넓은 초원 위의 하늘공원에는 제2차 세계대전 시부터 이라크전까지 전쟁터를 누뒀던 해군 항공기들이 조용히 날개를 접고 있다. 이 하늘공원은 자연스럽게 해군 항공의 산 역사교육장이 되고 있었다. 현재 美 해군은 항공모함 12척, F-18 호넷전투기 900여 대와 엄청난 수량의 지원기를 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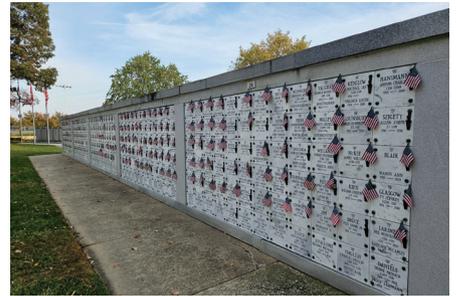
美 해사 상징동물 야생 염소



국기강하식을 하는 해사 생도들



하늘공원과 전시 항공기



美 해사 출신 전사자 비각



美 대통령 앞에서 임관 선서를 하는 해사 졸업생

미국 최초의 주 의사당 건물과 한국 사위 “호건”

아나폴리스 시내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물은 미국 최초로 건립된 주 의사당이다. 내부에는 주 상·하원 회의실과 미국 독립과정 전시실이 있다. 이 의사당 건물 맞은편이 메릴랜드 주지사 공관이다. 한국 사위 “호건(Hogan)” 주지사도 이곳에서 살았다. 전남 나주에서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유미” 여사는 가족을 위해 헌신한 여성이었다. 호건의 암 투병 시기에도 정성을 다해 그를 보살폈고, 3자녀를 훌륭하게 교육시켰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도 그녀는 앞장섰다. 이런 “유미” 여사의 내조로 호건 주지사는 77%의 압도적인 주민 지지율을 유지하며 2023년 초에 퇴임했다. [▶▶](#)



메릴랜드주 주지사 공관 전경



신종태 교수

2010년 국내 최초로 충남대에서 군사학박사를 취득했다. 충남대·국군간호사·조선대에서 전쟁사를 강의하면서, 세계 60여 개국의 군사 박물관과 전쟁유적지를 답사했다. 현재도 계속 답사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전쟁유적지를 찾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F-4 팬텀 퇴역행사

지난 55년 동안 대한민국의 영공을 성공적으로 지켜온 F-4 팬텀의 퇴역 행사가 6월 7일(금),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하에 거행되었다. 행사는 개회사, 국민의례, 팬텀 출격명령 하달, 전·현직 팬텀 임무 요원에 대한 감사장 및 표창장 수여,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팬텀 임무종료 보고, 명예전역장 및 화환 수여, 임무 이양 기념 축하비행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마지막 출격을 끝으로 F-4 팬텀은 지난 55년 동안 이어온 대한민국 영공수호의 사명을 명예롭게 마쳤다.





마지막 출격 중인 F-4 팬텀



F-4 팬텀 임무 종료 신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명예 전역장을 수여 받은 F-4 팬텀





2024년 공군 정기음악회 개최

대한민국 공군은 6월 13일(목), 서울 KBS홀에서 호국보훈의 달과 공군창군 75주년을 맞아, 미래로 도약하는 공군의 위상을 확인하고 F-4 팬텀의 명예로운 퇴역을 국민들과 함께 기리기 위해 '2024년 공군 정기음악회'를 개최했다. 주한 美 8군 군악대와 함께한 이번 음악회는 강아랑 아나운서와 임동현(배우 이도현) 상병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팬텀의 눈부신 활약을 표현한 합동군악대의 'Illumination' 연주와, 소프라노 유성녀와 테너 류성수의 성악 협연, 가수 소향의 무대 등 음악회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관객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가수 소향



성악 협연을 펼친 소프라노 유성녀와 테너 류성수





서울 AI 허브 개관 및 공군 AI 신기술 융합센터 개소

이영수 참모총장은 5월 29일(수)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열린 서울 AI 허브 개관식 및 공군 AI 신기술 융합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미래전 핵심인 공군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스마트 비행단 등 다양한 분야에 AI 도입 및 활용을 모색하고 있으며, 오늘 공군 AI 신기술 융합센터 개소를 계기로 민·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AI 기반의 강력한 미래 항공우주력을 건설해 나가겠다”며, “공군의 발전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행정혁신, 스타트업의 방산 분야 진출 등 민·관·군 상생 발전의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4E 지휘비행



이영수 참모총장은 6월 5일(수) 수원기지를 방문해 비행단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F-4E에 탑승해 지휘비행을 했다. 이번 비행은 지난 55년 동안 영공방위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한 F-4 팬텀의 퇴역을 앞두고 시행된 지휘비행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참모총장은 수원기지를 이륙해 동·서해와 내륙 지역을 차례로 비행하며 인근 전투비행부대 전투기들의 전술조치 능력을 점검했다.

미사일 방어부대 대비태세 현장지도



이영수 참모총장은 6월 11일(화) 수도권에 있는 미사일 방어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참모총장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 등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의 다양한 도발 상황에 대비한 임무 절차를 숙지하고, 정신무장을 통해 적의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임관기념행사

공군사관학교는 6월 1일(토), 교내 성무연병장에서 2024년 공사 총동창회 임관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공사 총동창회 임관기념행사는 임관 10·20·30·40·50주년을 맞이하는 동문들을 모교로 초청하는 기념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22·32·42·52·62기 동문 및 친지, 순직 조종사 부인회 등 약 1,600여 명이 참석하여 공사와 공군의 발전상을 확인하고 후배 생도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교육사령부

제152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

공군교육사령부는 5월 30일(목), 부대 내 대연병장에서 제152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 지난 2월 26일,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한 394명의 신임 장교들은 유격훈련, 기지방호훈련 등 실전적인 훈련과 국가관·대적관 등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정예 장교로 거듭났다. 특히,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하여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김영재 소위,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에 이어 3대째 장교로 임관한 김기현 소위 등 다양한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제1전투비행단

농촌 일손돕기 대민지원

제1전투비행단은 6월 10일(월), 전라남도 나주시의 양파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대민지원을 실시했다. 나주시청의 요청에 따라 시행된 이번 대민지원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대 인근 농가를 돕고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대민지원에 참여한 1전비 장병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매진했다.



제11전투비행단

'24년 전투지원 경연대회

제11전투비행단은 5월 29일(수), F-15K 무장·정비사들이 항공무장에 대한 전투지원 능력을 향상하고 최상의 정비지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24년 전투지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25개의 정비조, 총 96명의 장병이 참가했으며 대회는 무장장착, 탄약조립 등 5개 종목에 대한 정비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22정비중대 등 3개 정비중대가 우수지원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제16전투비행단

전반기 야간 비상 관제탑 출동 훈련

제16전투비행단은 6월 12일(수), 전반기 야간 비상 관제탑 출동 훈련을 실시했다. 비상 관제탑 출동 훈련은 주 관제탑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항공교통관제사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16전비 관제 요원들은 주 관제탑에 기능을 상실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에 임했으며 항공기 통제, 활주로 내 지상 이동 통제 등 관제 임무 절차를 완벽히 숙달했다.



제17전투비행단

전투지휘검열 실시

제17전투비행단은 5월 20일(월) ~ 31일(금), 공군 작전사령부가 주관하는 전투지휘검열을 실시했다. 공군의 비행단들은 전투지휘검열을 통해 전투준비태세와 전·평시 임무수행 능력을 확인한다. 17전비 장병들은 적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재난통제 훈련, 대테러 훈련, 부대·전투원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야간 기지방어 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하며 부대의 군사 대비태세 전반을 점검했다.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콩: 풍부한 영양, 깊은 역사



노고은 요리연구가

요리연구가이자 대한민국조리기능장으로 '세상의 모든 레시피'와 '한국외식관광진흥원'을 운영 중이다. 일상에서 새로운 맛과 경험을 찾는 것을 즐기고,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콩과 작물은 인류의 식단에서 벧과 작물과 함께 가장 중요한 과 중 하나에 속하는 작물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옥수수, 밀, 벼, 감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작물이 바로 콩이다. 야생 콩과 재배 콩의 분포를 연구한 결과, 만주 지방과 한반도를 콩의 원산지로 보고 있다.

콩은 같은 무게의 쇠고기보다 단백질이 2배, 열량이 3배 더 많다. 콩과 식물은 '질소고정'이라는 과정으로 공기 중의 질소를 빨아들이고 씨앗인 콩에 질소 성분인 단백질을 저장해 둔다. 풍부한 단백질로 값비싼 동물성 음식의 대체재 역할을 해왔고 아시아, 중남미, 지중해 지역에서 주요 작물로 활용되었다. 고대 로마에서 콩이 가진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가 있다. 바로 로마의 명문가 이름이 주요 콩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파비우스 가문은 누에콩(fava bean), 렌틸루스 가문은 렌틸콩(lentil), 피소 가문은 완두콩(pea), 키케로 가문은 병아리콩(chick pea)에서 이름을 따왔다고한다.

동아시아권에서는 콩과 식물인 대두를 크게 두 가지로 활용하여 음식을 만들었다. 하나는 단백질과 기름을 우유 형태로 추출하여 목처럼 농축하는 방법으로 두부와 유부가 이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콩을 발효시켜 풍미를 생성하는 미생물을 증식시키는 방법으로 된장과 간장, 미소, 템페가 이에 속한다.

전쟁에서 무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보급, 즉 식량이다. 보존성이 뛰어난 레토르트 식품과 동결건조 식품은 본래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한다.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15~16세기 일본 전국시대에 된장은 전투식량으로 활용되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보존성이 뛰어나서 말리거나 볶아 환으로 만들면 휴대하기 편리했다. 물에 풀어 끓이면 된장국이고, 여기에 각종 채소를 넣으면 영양 보충도 가능했다.

콩을 원료로 만든 두부는 콩을 활용한 대표적인 음식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 고치의 영주가 전쟁에 참여하여 포로를 일본으로 끌고 갔는데 그 중 박호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일본으로 끌려가 두부를 만들었고 그 두부가 유난히 단단하고 맛과 향기가 좋아 '당인 두부'라고 불리며 명물이 되었다. 당인은 외국인이라는 뜻으로 당인 두부는 외국인이 만든 두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웃 나라의 명물이 된 고급 두부에는 이렇듯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온 명나라 군대는 군량을 조선 현지에서 조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의 민가를 약탈하기도 하고 관아의 양식을 빼앗는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기준을 만들어 보급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조선의 두부 맛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식단에 두부를 포함시켰다.

콩 이야기의 마지막은 조리 팁이다. 콩 특유의 비린내 때문에 콩을 싫어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비린내는 대두의 높은 불포화 지방 함량과 분해 효소 때문인데, 콩 세포가 손상되면 효소들과 산소, 지방이 만나 풀이나 산패한 지방을 연상시키는 휘발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비린내로 느껴진다. 이는 조리 시간을 짧게 하여 콩의 효소들이 지방을 공격하기 전에 활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삶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콩을 물에 미리 불리기, 끓는 물에 넣어서 삶기, 압력 조리 기구로 삶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콩에서 나는 비린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동서양 그랜드투어

「자화상」,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이민수(홍익대학교 동양학과 초빙교수)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한국미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2023년 전북도립미술관 객원연구원, 2021-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공저서로 《모던 경성의 시각문화와 관중》(한국미술연구소CAS, 2018), 공역서로 《미술사방법론》(세미콜론, 2012),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아트북스, 2005)이 있다.

부리부리한 두 눈에 오뚝한 코, 굳게 다물어진 입매로 강한 인상을 주는 이 여인의 초상화는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인 정월(晶月) 나혜석(1896-1948)의 자화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이 그림 속 여인은 몇 장의 흑백 사진으로 전해지는 나혜석의 모습과는 영 판판이다. 화폭에는 나혜석의 모습과는 다른 과장된 이목구비의 서양 여인이 앉아 있다. 화가는 어쩌서 자신의 모습을 이토록 다르게 그렸을까?

사법관 벼슬을 지낸 부친을 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그녀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서울의 진명여자고등 보통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면서부터였다. 세상의 이목을 끈 수재 소녀는 같은 해 도쿄에 있는 여자미술전문학교(女子美術專門學校) 서양화과에 입학한 최초의 조선인이 된다.

1918년 3월, 미술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전업 화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나혜석은 1921년, 서울 경성일보 내청각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했다. 70점의 유화 작품을 내건 전시에는 5,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20여 점의 작품이 고가에 팔렸다.

1927년, 나혜석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된다. 남편인 변호사 김우영과 구미여행^{*}을 가게 된 것이다. 새로운 자국에 목마른 그녀는 남편 김우영이 법률공부를 위해 베를린에 가 있는 동안 타지에서 경험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그 중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으로, 파리에서 아카데미 랑송의 교사 로제 비시에르(Roger Bissiere)로부터 미술 지도를 받은 일과 파리 유학생 모임에서 만난 최린과의 스캔들을 꼽을 수 있다. 전자는 화가로서의 삶에, 후자는 여인으로서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 서구미(西歐美), 즉 서양과 미국으로의 여행을 의미함. 서구의 문물과 사상을 위해 서양을 여행하는 것



[도판] 나혜석, 「자화상」, 1928년경, 캔버스에 유채, 60x48cm,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이제 앞서 제기한 「자화상」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자화상」은 기존 나혜석의 화풍에서 진일보하여 파리에서 습득한 야수파 화풍이 가미되어 그린 그림으로 보인다. 여행 이후 서구에 대한 동경과 갖배워 미숙한 표현법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림 속 전혀 닮지 않은 화가의 얼굴과 강렬한 이목구비 표현에 어느 정도 수궁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몇몇 학자들은 이 작품의 제작 시기를 구미여행에서 돌아올 즈음인 1928년 전후로 추측한다.

하지만 그림 하단 좌·우측에 영문과 한글로 두 개의 서명이 적혀있는 특이한 상황을 근거로 이 작품 속 모델은 나혜석이 아니며 해당 그림이 위작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안타깝게도 현재 전해지는 나혜석의 작품 가운데 일부는 위작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초의 신여성 서양화가 나혜석의 대표 작품들은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이는 최린과의 스캔들에 분노한 남편 김우영과의 이혼, 「이혼고백서」(1934) 발표 등 파격적인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 당시 나혜석의 행동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었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그녀의 활동은 제한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서울 원효로 시립 자제원 병실에서 나혜석으로 추정되는 이의 사망 사실이 이듬해 3월 국가에서 발행하는 『관보(官報)』 행려사망 항목에 기재되었다. 모두가 주목했던 그녀의 삶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마감되었다.

이렇듯 한때 잊힌 화가였던 나혜석은 1970년대 이후 주목받는다. 당시로써는 극히 드물게 당대의 서구미술을 직접 접했던 그녀의 작품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최근 더욱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한 달, 한 권

여름이 떠오르는 소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정효숙 작가

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 꾸준히 올린 기록이 쌓여 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랑이씨)가 되고, 2023년 10월에는 도서 부문 이달의 블로그에 선정되었다. 책 하나 내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누구든지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싶다.

안녕하세요! 월간 공군 흡수달을 담당하는 도서 인플루언서 랑이씨입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고 7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에세이와 고전 소설, 그리고 자기계발서를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름 느낌이 물씬 나는 책,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계절마다 그 계절이 생각나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특히 에세이나 소설에서 계절감 있는 책을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름을 맞아 어떤 책을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독서인들 사이에서도 여름하면 언급되는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는 건축과를 막 졸업한 청년이 존경하는 건축가 ‘무라이’의 건축사무소에 취직하며 시작합니다. 무라이 건축사무소는 오랫동안 신입을 뽑지 않는 곳이었습니 다. 무라이 선생님은 그해 국립 현대도서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상 깊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나’를 채용합니다.

무라이 선생님은 미국에서 먼저 유명해진 건축가로 소박하고 단아한 건축과 주변에 녹아드는 공간, 가구 하나하나 세심하게 짜 맞추는 섬세함을 추구했습니다. 무라이 건축사무소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름에는 별장으로 건너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름 별장 역시 무라이 선생님이 설계한 곳입니다. 여름 별장은 커다란 계수나무를 양팔로 끌어안고 있는 것 같은, ㄷ자형 산장으로 해발 1,000미터가 넘는 고지에 위치해있습니다. 그곳에는 부엌과 가사실은 물론 남녀가 분리된 세탁실, 목욕탕, 침실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건축사무소의 일원으로 무라이 선생님이 설계한 집을 보수하고, 현대도서관 경합에 앞서 도서관 책장 등의

설계를 맡게 됩니다. 소설은 별장에서 보낸 시간과 삼십 년 뒤 ‘나’가 이를 추억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축에 대한 묘사입니다. 소설은 무라이 선생님이 설계한 여러 장소를 다루며 이를 매력적인 문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별장, 교회, 여름 별장 근처 마을의 집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 문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예배당 내부 마감은 어디를 봐도 빈틈이 없었다. 책상도 의자도 쓰다듬어주기를 요구하듯이 매끄러웠고, 벽의 회반죽에도 흠 손자국 하나 없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무라이 슌스케가 설계한 건물을 촉감으로 기억한다면, 여기저기 손바닥으로 만져보기만 해도 이 교회가 같은 건축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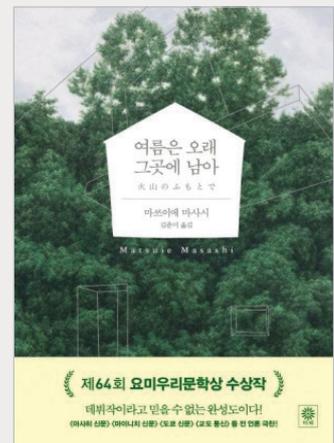
두 번째는 그 시절과 계절에 대한 향수입니다. ‘나’가 실제로 무라이 선생님과 일한 시간은 일 년 정도입니다. 짧다면 짧을 수 있는 1년이라는 시간에 책의 대부분을 할애합니다. 특히, 여름 별장에서의 나날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그 여름 별장의 풍경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연필 깎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은 기타아오야마나 여름 별장이나 같았다. 시작해보니 분명히 그것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작업으로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커피를 끓이는 향내처럼, 연필을 깎는 냄새에 아직 어딘가 멍한 머리 심지가 천천히 눈을 뜬다. 사각사각하는 소리에 귀의 신경도 전원이 켜진다.

세 번째는 문장입니다. 책을 보다 보면 천천히 음미하고 싶어서 멈추게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1인칭 화자 ‘나’가 풀어내는 독백은 담담하고, 묘사는 세세하며, 평범한 단어인데도 어딘가 아련한 분위기와 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는 한 시간 남짓해서 그쳤다. 유리창을 열자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가 흘러 들어왔다. 비에 씻긴 초록에서 솟구치는 냄새. 서쪽 하늘이 이상할 정도로 밝아지면서 일몰 직전의 광선을 숲에 던진다. 완전히 황혼에 가라앉아가던 나무들의 잎사귀가 장자리가 오렌지색으로 빛난다.

이렇게 이번 호는 소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 작품 말고도 다른 분위기의 여름을 느끼고 싶은 분이 있다면, 소설 『말겨진 소녀』와 에세이 『아무튼, 여름』도 함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이 한가득인데 분량상 전부 말해드릴 수 없는 게 아쉽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다양한 책으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문장 | 문장

영화로운 나날

「그랑블루」 도전, 우정, 청춘 그리고 여름 바다



정송희 영화전문블로거

어릴 때부터 영화와 음악을 열렬하게 좋아한 끝에 부산대학교방송국의 PD를 거쳐 부산 KBS-FM에서 작가를 했고, 대종상영화제에서 예선심사를 맡았었다. 지금은 ‘송이둥이’라는 필명으로 영화 평론을 쓰는 네이버 영화전문블로거·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어느새 푸른 바다와 하늘이 넘실거리며 유혹하는 여름입니다. 여름 하면 압도적인 이미지로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각 미와 시각효과를 생명으로 하는 프랑스 ‘누벨 이마주(Nouvelle Image)’의 거장 뤼크 베송 감독이 1988년에 발표한 「그랑블루」입니다. 질푸른 바다와 점프하는 돌고래의 이미지를 잘 살린 포스터가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그랑블루(Le Grand Bleu)」는 눈부신 바다를 닮은 ‘엔조’와 ‘자크’, 두 남자의 뜨거운 도전, 우정 그리고 사랑이 담긴 청춘의 기록을 담담하고도 치열한 이미지를 통해 그려냅니다. 영화 「그랑블루」에는 물고기의 은빛 비늘처럼 반짝이는 바다, 푸른 쪽빛의 바다, 빠진 동전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바다, 모두 다 삼킬 듯이 질푸른 색의 바다 등 똑같은 것 하나 없이 다양한 우리의 삶과 닮은 바다들이 나옵니다. 그 바다들에 성향이 너무 다른 엔조와 자크가 있습니다. 엔조는 외향형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잠수부였던 반면, 자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안식처인 바다와 돌고래 그리고 유일한 친구 엔조와 함께 세상을 알아가는 내향형 인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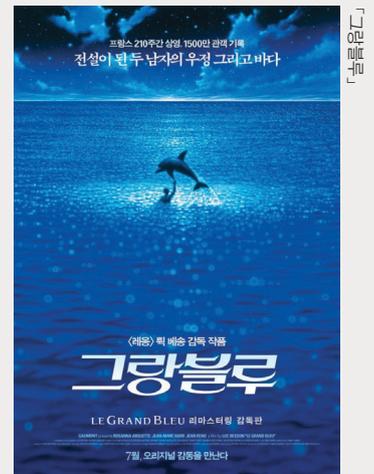
바다와 다이빙이 삶 그 자체인 엔조와 자크는 시칠리아 섬에서 열리는 프리다이빙 대회에 함께 참가합니다. 엔조와 자크는 서로의 기록을 경신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크는 바닷물 속 깊이 잠수하는 동안 심장이 거의 뛰지 않고 몸 안의 혈액이 뇌로 집중되며 압도적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마치 ‘돌고래형 인간’이 된 것처럼 바다에서 생활하는 돌고래와 수족관에 있던 돌고래들이 자크와 동기화되며 다 함께 점프하는 장면은 소름과 희열을 안겨주는 명장면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익숙하지 않고 바다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자크는 돌고래와 노느라 연인에게 소홀하게 되고, 친구 엔조가 자신이 세운 신기록에 자극받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록에 도전하다가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되면서 방향이 깊어집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지만 꿈속에서도 바다의 짙은 푸른 물결, 자신을 향해 내려와 해엄치는 돌고래들의 환영을 지켜봅니다. 자크는 연인과의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일부분이자 정체성인 바다를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친구 엔조를 뒤따라가기라도 하듯이 바다와 일체를 이루며 돌고래 무리를 향해 행복한 귀향을 선택합니다. 연인의 눈물겨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식처가 되어준 바닷물 속에 들어가 생명줄에서 손을 놓고 돌고래들의 무리에 섞여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아니 돌아옵니다.

「그랑블루」는 여름 바다를 배경으로 푸르게 빛나는 시간을 함께 보낸 두 친구의 우정과 도전 정신이 거대한 바다를 향한 경외심과 함께 빛을 발하는 영화입니다. 도전하는 용기와 실행력은 ‘여름’이라는 계절이 주는 치열함, ‘바다’라는 자연이 주는 경외심과 잘 융합되어 ‘청춘’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킵니다. 이 영화는 청춘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집중해 뭔가를 이루어내며 가장 푸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청춘다운 것’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 청춘을 온전하게 함께 누리며 도전하며 전설을 써 내려갔기에 두 사람의 우정이 빛을 내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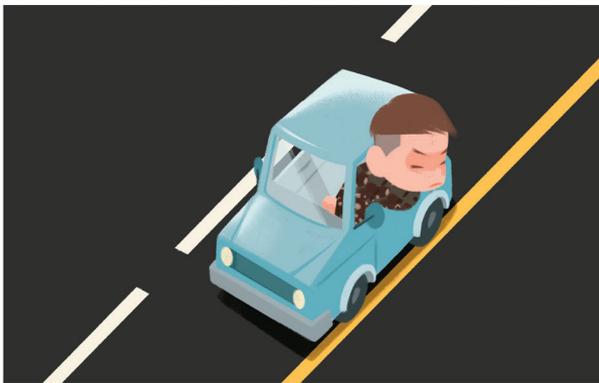
이 영화를 보며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여름 바다를 향한 프리다이빙 도전과 우정의 찬란한 기록에 비해 자크를 따라온 연인과의 사랑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은 것 같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강렬한 이미지를 담아낸 ‘누벨 이마주’의 거장답게 30년 전의 영화인데도 프리다이빙 신기록을 세우는 자크를 따라 솟구쳐 오르는 돌고래들의 모습과 바닷물이 자크를 향해 내려오는 연출 등은 여전히 보는 이를 소름 돋게 합니다.

영화는 실존 인물 엔조 마이오르카와 자크 마을을 바탕으로 허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바다를 향한 자세와 열정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청춘, 우정, 사랑, 도전, 프리다이빙, 돌고래 이야기를 푸른 여름 바다에 다 넣어 만든 영화 「그랑블루」를 보면서 2024년 여름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생각하는 그림

선을 넘다



자동차 도로에는 수많은 선이 있습니다. 신호 앞에서 멈추는 정지선,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 도로의 중앙을 가르는 중앙선 등이 있죠. 선마다 각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운전자는 이 모든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올바른 교통 문화를 조성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선을 넘을 경우, 교통사고의 확률이 높아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을 넘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나 범칙금 등 제재가 부과됩니다.

선을 넘는 것은 관계에서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조종하는 언어폭력은 명백히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언어폭력은 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호칭이나 비속어, 욕설이나 협박, 강요처럼 명백히 자각할 수 있는 폭력이 있는 반면, 상대방을 애매하게 기분 나쁘게 하고, 은근히 무시하고 경멸하는 경우 또한 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며 부인하더라도 폭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당한 사람의 생각과 반응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언어폭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냉랭한 무관심과 무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해도 소용없잖아.” “너한테 말할 이유 없어.”와 같은 말이죠. 괜스레 탄성을 피우면서 ‘듣고 있으니 말해’처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또, 흔한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성격과 인격적인 특성에 대해 맘대로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는 꼭 일을 이런식으로 하더라.”처럼, 구체적인 행동과 말에 따라 피드백을 하기보다 농담을 가장한 빈정거림, 부정적인 용어로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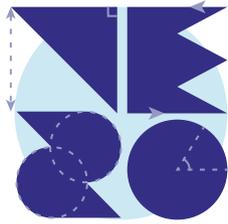
언어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언어폭력은 장기간 지속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반대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한 기분을 만들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공군인 여러분! 선을 넘지 않는 정중함으로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



그림 MAVIN(정오성) 작가

동화 같은 색채와 따뜻한 표현기법과 내용을 그리려고 노력하는 일러스트레이터, 2018년부터 MAVIN(마빈)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다. 세스코&무신사 협조 전시 참여, 스트레이키즈 뮤직비디오 아트워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인스타그램 @os.mavin)



공 테 리 어

우리 집에 알맞은 침대를 찾아보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가구는 무엇인가요? 소파? 테이블? 저는 퇴근 후 돌아와 지친 나를 포근히 감싸주고 휴일이 되면 나와 물아일체를 이루는 침대가 떠오릅니다. 오늘은 우리 집 유형에 알맞은 침대의 종류와 특징을 함께 살펴보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납형 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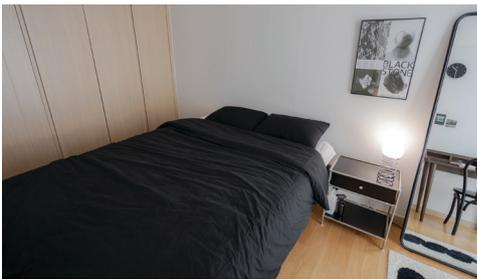
좁은 방 또는 원룸처럼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면?

수납형 침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은 침대 하부에 3~4개의 서랍이 달려있어 자주 꺼내 입는 옷이나 양말, 속옷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서랍형 침대입니다. 원룸에서는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가구입니다.



베드 스커트를 활용한 침대

여기에 서랍을 가려주고 싶다면 베드 스커트를 활용해 가려 주시면 됩니다. 더욱 깔끔한 침실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헤드가 없는 침대

침대를 둘 공간이 여유롭지 않아 매트리스만 두어야 하는 경우라면?

헤드가 없는 침대를 고려해보세요. 헤드가 없는 침대의 경우 프레임이 매트리스 사이즈와 거의 동일하게 나오다보니 매트리스만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나 침대와 맞은편 벽과의 사이 간격이 여유롭지 않을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하부 오픈형 침대

일반적인 침실의 정석을 따르고 싶다면?

옷장 또는 빌트인 가구가 잘 구비되어 별도의 수납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면 침대 헤드가 있는 하부 오픈형의 침대를 추천드립니다. 하부가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하기도 편하고 고를 수 있는 침대 디자인의 폭이 넓어져 취향에 더 잘맞는 제품을 선택해 침실을 꾸밀 수 있어요.

책 읽는 공군 “사람을 아십니까?”

일병 윤강호

“몽상가입니다. 생각은 많은데 말이 적습니다. 그래서 글을 끄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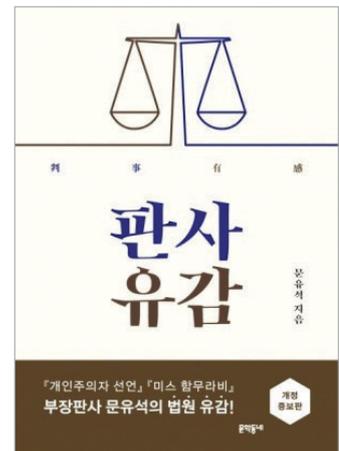
“도를 아십니까?” 한 번쯤 만난 적 있지 않으신가요. 길거리에서 포교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평소라면 바쁘다며 뿌리치고 말 일인데, 가끔 마음이 동할 때가 있습니다. 느지막한 오후의 무료함을 이기지 못한 탓이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오길 기대하는데 웬걸, 생각보다 논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솔깃할 때도 있고요. 문득 참 대단한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만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믿음을 부여하다니. 그래서일까 책을 덮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길거리 전도사분들입니다. 판결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측면에서 법관의 일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요.

사법권은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투표를 통하여 권력을 부여받지만, 법관은 어떤가요. 사법권은 오직 사법에 대한 신뢰에 기반합니다. 사람들이 판사를 믿고 재판을 맡기기에 법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사법과 종교가 꼭 닮았다고 느낍니다. 종교는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사법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성직자는 교리로써 신도를 설득하고, 법관은 판결로써 국민을 설득합니다. 사법권이란 논리와 상식만으로 유지되는 권력인 셈이지요. 법을 생판 처음 접해본 시민조차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법관의 판결입니다.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판결은 그 의미와 당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판사유감』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법관의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고민하는 법관의 괴로움과 그러한 고민 끝에 느낀 바를 엮어낸 책입니다. 법전만 들여다보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더없이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결국 판사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법정에 선 사람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딱딱한 법에 사람다운 생기를 더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는 재판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법에도 신이 있다면 그건 아마 보통의 사람일 겁니다. 그렇기에 국민이라는 신을 섬기며 그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이 사람을 잊을 때, 정의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법관은 무심(無心)하기보다 유감(有感)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법 정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슴 속에 이 질문 하나 갖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당신, “사람을 아십니까?” 



『판사유감』
문유석 지음 | 문학동네 펴냄

제 이름은 공군 정훈병입니다

Date . 2024 / 06 / 07

“그래서 정훈병은 어떤 특기입니까?” 훈련병 시절, 나의 이름만큼이나 자주 받는 질문이었다. 나의 첫 후임인 857기 신병들이 들어온 오늘도 그 질문은 어김없이 나를 찾아왔다.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위치에서 우리 비행단의 얼굴을 알리는 나. 내 이름은 공군 정훈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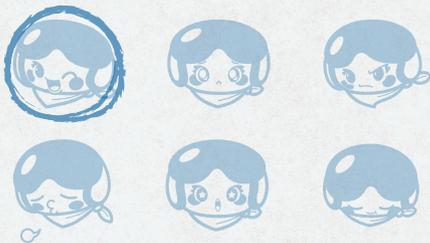
지난 1월은 내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20대1이라는 적잖은 경쟁률을 뚫고 공군 정훈병에 합격한 것이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기훈단에서 예비 정훈병으로서 내가 느낀 감정은 언제나 외로움이었다. 2,000여명의 훈련병 중 단 3명뿐인 정훈병 동기들을 찾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에 가까웠고, 다른 동기들이 특기 관련 대화를 나눌 때면 공감할 수 없는 것이 늘 아쉬웠다. 설상가상, 특기학교를 가지 않고 직접 배속을 받는 나는 정들었던 동기들을 뒤로하고 홀로 이른 자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친구 하나 없이 비행단 정문을 지나며 마주한 어두운 밤하늘은, 마치 앞으로의 캄캄한 내 군 생활이 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걱정이 사라지기까지는 단 1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정훈실원들을 비롯한 간부님들과 선임 병사들은 비행단의 유일한 이등병이자 막내 정훈병이었던 나를 누구보다도 뜨겁게 환영해주셨다. 특히 일부 간부님들은 내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고 이는 사회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력한 소속감과 공군이라는 자부심으로 나를 안아주었다. 또한, 정훈병으로서 내가 맡은 다양한 임무들은, 시들었던 나의 자신감을 뜨겁게 불태우기 충분했다.

비행단의 모든 이들의 아침을 함께하는 국방일보와 일일정신전력교육 자료는 바로 나의 손에서 출발한다. 뿐만 아니라 비행단원들의 증명사진과 각종 행사 사진 역시 정훈병에 의해 촬영되고 편집되며 인화된다. 더 나아가, 비행단이 가진 능력을 알려 국민과 신뢰를 쌓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사진 및 영상, 포스터 역시 나의 손을 거쳐 완성된다. 병사들이 애용하는 도서관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도 정훈병의 임무에 해당한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정훈실원들의 엄청난 고민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7월. 내게는 비행단에서 맞이하는 첫 여름이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충주의 여름이 될지는 몰라도, 나는 정훈병이라는 이 뜨거운 자부심으로 무더운 7월을 시원하게 이겨낼 준비를 마쳤다. 

오늘의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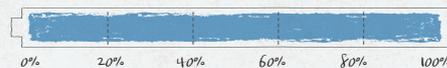


MEMO

뜨거운 오늘,
더 뜨겁게 이겨내자!



오늘 하루 만족도



마음의 소리

박향숙

woaik25**@nate.com

‘공테리어’ 기사가 좋았습니다. 얼마 전 이사를 해서 집 안 인테리어를 산뜻하게 바꾸고 싶던 찰나, 월간 『공군』을 통해 좋은 팁을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개성 강한 신세대 주부들이 각자의 취향대로 보금자리를 꾸미는 경향이 많은데 산뜻한 색상의 인테리어로 가족들의 건강까지 챙기며 삶의 활력소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준호

zzzvc1**@naver.com

이번호도 다채로운 내용이 있어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엔 항공군의 활약과 관련한 특집이 정말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을 알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6·25전쟁기 항공력이 중공군을 막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활약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지휘

jangjih**@gmail.com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책 읽는 공군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 코너가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해당 코너를 계기로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의 6·25전쟁 참전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그동안 잘 몰랐던 뉴질랜드 육·해군이 연합군으로 참전한 가평전투, 마량산 전투 및 연천 후크고지 전투 포병지원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해상지원 등의 역사를 알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는 말처럼 많은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AF

도움을 드린 것 같아 월간 『공군』 편집실도 뿌듯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월간 『공군』은 다양한 분야의 교양 코너를 기획하며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F

월간 『공군』은 시기에 부합하는 다양한 특집을 통해 공군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특집으로 구독자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AF

월간 『공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월간 『공군』은 ‘책 읽는 공군’ 등 장병 참여코너를 운영하며 공군 장병들이 가진 다양한 생각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접수 방법



마음의 소리

월간 『공군』 홈페이지(afzine.co.kr) <독자의견>에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기념품 수령을 위한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책 읽는 공군 /공군인의 하루

공백 포함 1,200자/1,100자 내외, 매월 12일까지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전자우편 전송
(인트라넷: uk0319@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코드



월간
공군

553